

그런데 또 이즈막 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흔바
그런데 또 이즈막 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흔바

람벽엔 내쓸쓸한얼굴을 쳐다보려이러한글
람벽엔 내쓸쓸한얼굴을 쳐다보려이러한글

자 들이 지나간다 - 나는 이세상에서 가난하
자 들이 지나간다 - 나는 이세상에서 가난하

고 외롭고 노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나
고 외롭고 노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나

다 그리고 이세상을 살아가는 데 내 가슴은 너
다 그리고 이세상을 살아가는 데 내 가슴은 너

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론히전한 것으론편
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론히전한 것으롸

우 로 스물 두 우 로 가 득 찬 다 그 리 고 이 번 에 는 나
우 로 스물 두 우 로 가 득 찬 다 그 리 고 이 번 에 는 나

르 위 로 하 는 듯 이 울 려 하 는 듯 이 눈 질 을 하 며
르 위 로 하 는 듯 이 울 려 하 는 듯 이 눈 질 을 하 며

주 먹 질 을 하 며 이 런 글 자 들 이 지 나 간 다 - 하
주 먹 질 을 하 며 이 런 글 자 들 이 지 나 간 다 - 하

늘 이 이 세 상 을 내 일 적 에 그 가 가 장 귀 애 하 고
늘 이 이 세 상 을 내 일 적 에 그 가 가 장 귀 애 하 고

사 랑 하 는 것 들 은 모 두 가 난 하 고 외 롭 고 높 고
사 랑 하 는 것 들 은 모 두 가 난 하 고 외 롭 고 높 고

스물 스물 하 니 그 리 고 언 제 나 넘 치 는 사 랑 과 스물 두
스물 스물 하 니 그 리 고 언 제 나 넘 치 는 사 랑 과 스물 두

속 에 살 도 록 만 든 것 이 다 초 생 달 과 바 구 지 꽃
속 에 살 도 록 만 든 것 이 다 초 생 달 과 바 구 지 꽃

과 짝 새 와 당 나 귀 가 그 러 하 듯 이 그 리 고 라 이
과 짝 새 와 당 나 귀 가 그 러 하 듯 이 그 리 고 라 이

넬 마 리 아 리 쉘 케 가 그 러 하 듯 이
넬 마 리 아 리 쉘 케 가 그 러 하 듯 이

백 석 의 시 - 흰 바 람 벽 이 있 어 卍 에 서
백 석 의 시 - 흰 바 람 벽 이 있 어 卍 에 서